

한·독, 경제안보·첨단산업 협력 강화

- 산업부 장관, 공급망·핵심원자재·제조 AI 등 한-독-아태 협력 방향 제시
-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체결,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 경제교류행사(Korea Night) 개최, 한·독 및 아태지역 기업인 600여 명 참석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30일(금)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독일비즈니스콘퍼런스(APK*)에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한 한·독·아시아태평양 산업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을 체결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양해각서(MOU) 9건 체결을 지원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는 한·독 및 아태지역 주요 기업인 6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의 밤(Korea Night)’을 개최하여 민간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를 지원하였다.

* Asien-Pazifik-Konferenz(Asian-Pacific-Conference) : '86년부터 격년으로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 한국에서는 '07년 11차 회의 이후 19년만에 개최

APK는 독일 경제계의 대표적인 대(對)아시아·태평양 협력 행사로, 올해 출범 4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한과 연계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① APK 패널토론 >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가 독일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패널토론에 참석하였다. 동 토론에는 슈테판 로이엔호프(Stefan Rouenhoff)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정무차관, 롤란트 부쉬(Roland Busch) 지멘스 회장 겸 독일경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핵심광물의 전략 자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독일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태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과 독일의 산업적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역량과 독일의 정밀기계·산업자동화 기술을 결합하여, 제조 AI, 반도체,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제조업 AI 전환(M.AX) 정책과 현장 실증 경험을 소개하고, 산업데이터 활용과 제조 AI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② MOU 체결식 >

이어 산업통상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번 선언은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경제협력을 경제안보·공급망·첨단산업 등 전략적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정보공유 및 조기경보, 정·제련·재활용 및 제3국 공동개발, 핵심기술 보호, 반도체·모빌리티·배터리·산업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주요 인사들이 임석한 가운데 한·독 기업·기관 간 총 10여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이를 통해 전력·에너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기관 간 스타트업 육성 및 상호 시장진출 지원 등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과 독일은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산업 강국이자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협력을 기존 교역·투자 중심에서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독일 등 유럽 기업의 인도·태평양 진출 거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❸ 한국의 밤(Korea Night) 경제교류 >

한편, 같은 날 저녁 웨스틴 파르나스 서울에서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APK 경제교류 행사인 「한국의 밤(Korea Night)」이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롤란트 부쉬 지멘스 회장 겸 독일경제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 페터 아드리안(Peter Adrian) 독일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국 및 아태지역 정부·기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및 아태지역 기업인 간 교류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제조 AI 혁신전략과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비롯해 한국 문화공연과 기업인 교류 등이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려운 국제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장을 쌓는 것이 아닌 파트너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EU의 산업 가속화법(IAA)등 보호주의적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과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 개방과 혁신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진승덕	(044-203-5660)
		담당자	주무관	하정욱	(044-203-5665)

< MOU 체결식 개요 >

◇ 일 시 : 2026. 10. 30.^(금), 11:00 - 11:20

◇ 장 소 :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 그랜드볼룸

◇ 참 석

○ (한국측) 산업부 장관

○ (독일측) 슈테판 로이엔호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 APK 경제교류 행사(Korea Night) >

◇ 일 시 : 2026. 10. 30.^(금), 19:00 - 21:00

◇ 장 소 : 웨스턴 파르나스 서울 하모니볼룸

◇ 참 석

○ 통상교섭본부장, 테판 로이엔호프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차관,

롤란트 부쉬 지멘스 회장 겸 독일아태위원회(APA) 위원장,

피터 아드리안 독일상의 회장 등